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http://www.motie.go.kr

7.28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7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27. (목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
담당과장	양광석 과장(044-203-5240)	담 당 자	이용현 사무관(044-203-5244)

산업부, 한전 정전대응 태세 점검

- 정전정보 신속전파 및 긴급복구 체계 주문 -

□ 최근 집중호우로 청주지역에 동시다발적인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정전이 자주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에 나섰다

○ 7월 27일,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 15개 지역본부장을 소집하여 최근에 발생하는 정전사고의 원인 및 복구체계를 점검하고,

-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①정전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, ②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전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.

< 회의 개요 >

○ 일시 : '17.7.27일(목), 13:30 ~ 14:30, 한전 남서울본부(5층)
○ 참석자 :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계통본부장, 지역본부장(15개) 등
○ 점검내용 : 여름철 정전 예방 및 복구 대책, 신속 보고 등 수급전반 점검

□ 한전은 최근 정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충청, 경기 지역에 내린 기습폭우로 건물이 침수되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,

○ 수용가 설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설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하고, 발전차 등을 동원하여 임시 전기사용을 가능하게 조치하겠으며

○ 특히, 파급력이 큰 변전소 정전 등은 즉시 전파하고, 정전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전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.

□ 김학도 실장은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,

○ 풍수해 등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은 전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복구를 지원하고,

○ 평상시에도 한전 설비만큼은 철저히 관리하여, 국민들이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산업부와 한전, 전력거래소 등 전력유관기관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'전력수급대책기간'으로 지정하고, 전력수급상황 및 정전대응을 특별관리하고 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양광석 과장(☎044-203-5240), 이용현 사무관(☎044-203-52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7-27 11:16:26